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성경: 계 1:9-2:1

I.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보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이기는 전달자들은 사람의 영 안에서 교회의 터 위에 있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다 — 계 1:9-13, 20.

A. 초기에 교회생활의 실행은 한 도시에 한 교회를 갖는 것, 곧 한 도시에 오직 한 교회만 있는 것
이었다. 한 도시에 하나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지 않았다 — 행 8:1, 13:1, 계 1:11.

B.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인, 하나라는 진정한 터 위에서 모이는 우리의 집회에는 네 가지 특
징이 있다 — 비교 신 12:5.

1.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여야 한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시
133편, 요 17:11, 21-23, 고전 1:10, 엡 4:3.
2.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유일한 이름 안으로 함께 모여야 하며, 이
이름의 실재는 그 영이다. 그 어떤 이름이든 다른 이름이 붙으면 교파가 되고 분열되는 것
이다.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 마 18:20, 고전 1:12-13, 12:3하.
3. 셋째, 신약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그분의 거처는 특별히 우리의 영 안에, 다시 말해서 거듭
나 신성한 영이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인 우리의 연합된 영 안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
께 경배하기 위해 함께 모일 때,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며 모든 것을 우리의 영 안에서
해야 한다 — 요 3:6하, 롬 8:16, 딤후 4:22, 엡 2:22, 요 4:24, 계 1:10, 고전 14:15.
4. 넷째, 하나님께 경배할 때 우리는 반드시 육체와 자아와 타고난 생명을 거절하고, 그리스
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경배함으로써(마 16:24, 갈 2:20) 제단으로 상징된(신
12:5-6, 27)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적용해야 한다.

C.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환난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예수님 안에서’란 우리가 나사렛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내주하시는 예수님의 영,
곧 고난을 견디는 넘치는 힘을 가지신 한 사람의 영에 의해 고난을 견디며 박해를 받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행 16:6-7.
2. 우리가 오늘 고난을 받고 있는 동안 주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계
신다 — 행 9:4-5, 히 13:13.
3. 우리는 많은 환난을 통해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 — 행 14:22.
4. 그분의 부활 능력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다 — 빌 3:10, 골 1:24, 아 2:8-9, 14.
5.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고,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
려야 한다 — 계 12:11, 요일 3:16.

D.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왕국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왕국은 신실한 믿는 이들이 생명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기 위해 생활하고 있는 교회생활이다 — 마 16:18-19, 롬 14:17, 고전 3:7, 고후 3:18.
2.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 — 딤후 2:22.
3. 왕국 생활을 실행하려면, 우리는 죄지은 형제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 — 마 18:15-22.

E.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인내에 참여한 이들이다.

1. 우리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저항해야 한다 — 단 7:25.
2.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고난과 반대를 견디는 인내를 갖게 된다 — 계 3:10.
3.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인내로 인내할 수 있다 — 살후 3:5.

II.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신’ 대제사장으로서(계 1:13),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살피시고 그분의 신성 안에서 교회들을 보양하신다.

A. 사람의 아들은 인성 안에 계시고, 금띠는 그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사랑을 상징한다.

1. 그리스도는 교회들을 산출하는 신성한 일을 위해 허리에 띠를 띠심으로 강화되셨지만(출 28:4, 단 10:5), 지금은 자신이 산출하신 교회들을 가슴에 띠를 띠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다.
2. 금띠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힘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며, 가슴은 금과 같은 이 힘이 교회들을 보양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사용되고 발휘되는 것을 상징한다.

B.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로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교회들을 돌보시며 보살피고 계신다 — 계 1:13상.

1. 그리스도는 등잔대들의 등잔들을 손질하여 적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이것은 우리를 행복하고 유쾌하고 편안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 출 30:7, 비교 시 42:5, 11.
 - a. 주님의 임재는 부드럽고 따뜻한 분위기를 제공하여 우리의 존재를 보살핌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위로와 치료와 씻음과 격려를 준다.
 - b.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임재의 보살피는 분위기를 누림으로 생명의 보양하는 공급을 받을 수 있다 — 엡 5:29, 비교 딤후 4:6, 엡 4:11.
2. 그리스도는 등잔대의 등잔들의 심지를 다듬으심으로, 우리가 비추는 것을 막는 모든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서 잘라 내신다 — 출 25:38.
 - a. 심지의 검게 탄 부분은 우리의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자아와 옛 창조물과 같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아 잘라 내야 하는 것들을 상징한다.
 - b. 그리스도는 교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점(잘못된 행위와 결점과 실패와 결함)을 잘라 내심으로, 본질과 외양과 표현에서 교회들을 똑같이 되게 하신다 — 비교 고전 1:10, 고후 12:18, 빌 2:2.

C. 그리스도는 가슴에 띤 금띠로 상징된 것처럼,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교회들을 돌보시면서 보양하신다 — 계 1:13하.

1. 그리스도는 세 단계로 된 그분의 충만한 사역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보양하신다. 그 결과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여,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이기는 이들이 된다.
2. 거닐고 계시는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각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시며, 말씀하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등잔대들을 손질하시고 신선한 기름, 곧 그 영의 공급으로 등잔대들을 채우신다 — 계 2:1, 7.
3. 그분의 움직임에 참여하고 그분의 돌봄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교회들 안에 있어야 한다.

III. 하늘에 속하신 주님께서 태고부터 계신 것은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과 눈같이 희다는 것으로 묘사된다 — 계 1:14상, 단 7:9, 욥 15:10, 비교 아 5:11.

IV. 주님의 일곱 눈은 불꽃과 같으며, 빛 비추고 주입함으로써 지켜보고 감찰하고 살피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4하, 5:6, 단 10:6.

- A. 칠(7)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있어서의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눈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과 운행을 위한 것이다.
- B.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주로 그분의 심판에 관련된 것이다 — 단 7:9-10, 계 2:18, 19:11-12.

V. 주님의 발은 용광로에서 제련된 빛나는 놋쇠와 같은데, 이것은 그분께서 온전하고 밝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신성한 심판을 집행하실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1:15상, 겔 1:7, 단 10:6.

VI.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데(계 1:15하, 비교 14:2), 이 소리는 우레와 같은 소리, 곧 엄숙하고 장엄한(비교 10:3)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다(겔 1:24, 43:2).

VII. 그리스도는 교회들의 빛나는 전달자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다 — 계 1:16상, 20.

- A. 전달자들은 교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이들, 곧 예수님의 증거를 책임지는 이들이다.
- B. 별들처럼 하늘에 속한 본성을 지니고 하늘에 속한 위치에 있는 전달자들은 주님에게서 신선한 메시지를 받아 그분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이들이다 — 계 2:1상.
- C. 인도하는 이들은 그분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증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VIII. 그분의 입에서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이 칼은 그분의 분별하고 심판하며 죽이는 말씀으로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일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 계 1:16하, 히 4:12, 엡 6:17.

IX. 그리스도의 얼굴(단 10:6)은 해가 힘차게 비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심판하는 빛 비춤이 왕국을 가져오기 위한 것이다(계 1:16하, 10:1, 마 17:2, 비교 말 4:2, 사 5:31, 마 13:43).

X. 그리스도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결코 그분의 일을 완성하지 않은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며, 또한 살아 계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표현인 교회들을 살아 있고 신선하며 강하게 하신다 — 계 1:17-18상.

XI. 그리스도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 — 계 1:18하.

A. 죽음은 모으는 것이고, 음부는 가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무효화하셨고, 부활 안에서 음부를 이기셨다 — 딤후 1:10, 행 2:24.

B.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우리의 혼생명을 잃기를 훈련함으로써, 주님께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수 있는 입지와 기회와 길을 드리기만 한다면, 죽음과 음부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을 것이다 — 마 16:18, 21-26.